



더불어민주당 정인화 광양시장 후보가 지난 23일 중마동 새마을금고 사거리 앞에서 유권자들에게 인사말 건네고 있다. <정인화 후보 측 제공>



무소속 박성현 광양시장 후보가 지난 24일 마동 일대에서 유권자들에게 지역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박성현 후보 측 제공>



무소속 박필순 광양시장 후보가 지난 20일 백학문화센터에서 열린 '2026년 인입 직불금 및 산림재난 교육행사'에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박필순 후보 측 제공>

'인물론' 승부...민주 현직 시장 vs 무소속 전문가 '격돌'

6·3 지방선거 격전지

<9>광양시장

6·3 지방선거 광양시장 선거는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해 재선에 도전하는 정인화 후보와 무소속 박성현·박필순 후보가 격돌하는 3파전으로 치러지고 있다.

광양은 민선 5기부터 8기까지 4차례 연속 무소속 시장을 배출했다. 그만큼 호남을 뒷받침으로 둔 민주당의 영향력보다는 후보 경쟁력이 당락을 좌우하는 지역으로 꼽힌다.

무엇보다 직전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던 정인화 후보가 민주당 후보로서 16년 만에 뒷발을 탈환할 지, 5번 연속 무소속 시장 배출이라는 결과가 나올지 지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제26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한 민주당 정인화 후보는 광양시·여수시 부시장,

4연속 무소속 당선...후보 경쟁력이 관건

정인화, 與지원·연속성 부각...재선 도전

박성현, 해양·항만전문가 "광양 재도약"

박필순, '진정성 정치' "新 리더십 필요"

(사)여수광양항발전협의회 회장, 제20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4년 전 무소속으로 광양시장에 당선된 데 이어 올해 지방선거에선 민주당 후보로 재선을 노리고 있다.

정 후보는 주요 공약으로 금호동 노후주택단지 탄소중립메가클러스터 조성, K-반도체 미래소재 특화도시 구축, 완성형 전기차 생산공장 유치, 백운산·구봉산·섬진강권 관광개발 완성, 프로그라운드 유치와 전남드래곤즈 구장 이전 및 신축 등을 제시했다.

정인화 후보는 "힘 있는 정부 여당 후보인 정인화 만이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광양시의 도약

을 이뤄낼 수 있다"며 "검증된 행정력, 안정적인 시장 운영으로 시민 여러분과 함께 다시 뛰는 광양, 다시 성장하는 광양의 미래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무소속 박성현 후보는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 국립목포해양대학교 총장, 한국해양산업총연합회 부회장을 지낸 해양·항만 전문가다.

박 후보는 불법 전화방 의혹으로 민주당 경선 후보 자격을 박탈당한 뒤 무소속 출마를 강행했다.

북극항로 시대 광양항 동북아 거점항 육성, 광양제철소 리뉴얼 기반 철강 산업 재부흥, 서울대병원 산업의학·재활통합 국가메디컬 클러스터 구축, 광양 청년 기본소득제 도입, 민생회복 지원금 30만원 지급 등이 핵심 공약이다.

박성현 후보는 "당선 후 민생지원금 30만원 지급과 청년 지원 공약을 반드시 실천하며 광양 재도약을 위해 오직 광양시민의 삶과 미래만 보며 발로 뛰겠다"며 "시민 여러분이 광양의 진짜 주인이 되는 위대한 변화를 투표로 증명해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광양시의원·전남도의회를 지낸 무소속 박필순 후보는 당초 조국혁신당 광양시장 후보로 선정됐으나 이달 초 소수 정당의 구조적 한계를 이유로 탈당, 무소속 출마했다.

1995년 전남도의원 선거 출마를 시작으로 이번 광양시장 선거까지 총 7차례 지역에서 무소속으로 입후보한 이력을 발판 삼아 진정성 있는 정치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박 후보의 주요 공약은 광양시 예산 10% 민생 지원금 예산 편성, 서울대학교 백운산 대학병원 설립, 광양항 산업·물류 복합기지 전환, 광양시 도시개발공사 설립, 황금지구·울촌공단 다리 건설 등이다.

박필순 후보는 "인구 감소와 지역 경제 침체, 청년 유출 등 위기에 놓인 광양시를 지속가능한 미래도시로 도약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산업은 강하지만 삶은 어려운 광양을 바꾸고 시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하는 광양시장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양시원 기자

2026. 6. 3. 실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정보 카드뉴스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된 투표지, 득표수 미반영?

정상적인 개표 절차입니다.

투표지분류기 # 부정선거 의혹 # 팩트체크

투표지분류기 의혹 제기

기표 2번 후보자(제21대 국선 양천구을)에게 기표된 투표지가 투표지를 통과했음에도 득표수가 증가하지 않았다는 주장

팩트체크

"투표지분류기를 통과 후 재확인 대상 투표지로 분류된 사례"

구분	기표	재확인대상
1번 후보자	1	1
2번 후보자	2	2
3번 후보자	3	3
4번 후보자	4	4
5번 후보자	5	5
6번 후보자	6	6
7번 후보자	7	7
8번 후보자	8	8
9번 후보자	9	9
10번 후보자	10	10
11번 후보자	11	11
12번 후보자	12	12
13번 후보자	13	13
14번 후보자	14	14
15번 후보자	15	15
16번 후보자	16	16
17번 후보자	17	17
18번 후보자	18	18
19번 후보자	19	19
20번 후보자	20	20
21번 후보자	21	21
22번 후보자	22	22
23번 후보자	23	23
24번 후보자	24	24
25번 후보자	25	25
26번 후보자	26	26
27번 후보자	27	27
28번 후보자	28	28
29번 후보자	29	29
30번 후보자	30	30

기표된 투표지의 기표 모양이 불명확해 기표 2번에게 기표된 투표지는 투표지분류기 통과 후 재확인대상 투표지로 분류된 사례

심사·집계부

재확인대상 투표지는 이후 심사·집계부에서 유·무효표로 구분

유효표는 다시 정당 후보자별로 구분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전남 농수산물식품 일본 수출 확대 나선다

도, 현지 TV홈쇼핑·물류기업과 협약
김영록 지사 "수출 경쟁력 강화 기대"

전남도가 일본 현지 홈쇼핑·물류 전문기업과 협력해 전남 농수산물식품의 일본 TV홈쇼핑 시장 진출과 기업 간 거래(B2B) 수출 확대에 나선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난 30일(현지시간) 일본 도쿄에서 일본 홈쇼핑·통신판매 전문기업인 포

티포(Forty-four), 현지 물류·풀필먼트 전문기업 노아(NOAH)와 함께 '전남 농수산물식품 일본 시장 진출 및 수출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했다.

포티포는 일본 도쿄에 본사를 둔 홈쇼핑·통신판매 전문기업으로 상품 기획부터 광고·영상 제작, 판매 전략 수립 등 통신판매 전반을 수행하고 있다.

연간 약 1천건 규모의 광고·영상 제작 경험과 일본 전역의 콜센터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향후

전남 농수산물식품의 일본 TV홈쇼핑 입점을 위한 상품기획, 홍보 콘텐츠 제작, 마케팅 및 판매 전략 수립 등을 맡게 된다.

노아는 게이오백화점, 도큐백화점 등 일본 주요 대형 유통매장과의 네트워크를 보유한 물류·유통 전문기업이다.

상품 수입·통관부터 보관, 배송, 고객 대응까지 일본 시장 진출에 필요한 전 과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일본 현지 유통망 연계와 B2B 수출 확대를 위한 물류·유통 체계 구축 및 운영을 담

당하게 된다.

협약에 따라 전남도와 두 기업은 전남 농수산물식품의 일본 홈쇼핑 진출과 현지 유통망 확대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각 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해 상품 홍보·마케팅, 홈쇼핑 판매, 현지 유통망 연계, 물류 지원 등 일본 시장 진출 전 과정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김영록 지사는 "이번 협약이 전남 농수산물식품의 일본 시장 진출 확대와 수출 경쟁력 강화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전남의 우수 농수산물식품이 일본 소비자에게 더욱 널리 알려지고 수출 확대 성과로 이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재정 기자

광주매일신문 배려 교통문화 실천운동 캠페인

무단횡단 무조건 금지

안전한 실버 한 줄

주야간에 보행하는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 제작한 은색의 반사판 키링

교통안전 대한민국

오늘도 무사고

주관 TS 한국교통안전공단 참여기관 익산시지방국토관리청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광주경찰청 전라남도경찰청 광주광역시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광주광역시교통문화연구소 전라남도교통문화연구소 전라남도교통연수원 순해보험협회